

# 인지발달에 따른 도서관 이용과 독서성향 연구: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ibrary Use and Reading Tendency According to Cognitive Development: Focused on Fourth and Sixth Grade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

이은경 (Eunkyung Lee)\*\*

김기영 (Giyeong Kim)\*\*\*

### 초 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의 인지발달 차이가 도서관의 이용행태, 독서성향, 도서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초등학교 세 곳을 선정하여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인지발달 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발달이 높은 6학년은 도서관 정보서비스 요구가 4학년보다 많았으나 4학년에 비해 독서량과 도서관 이용이 적고, 흥미 위주의 책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여, 인지발달이 높다고 이용행태와 독서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학년은 도서관 인식에서도 4학년보다 낮았다.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이용행태와 독서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즉, 학생의 도서관 이용 정도, 도서 선정 시 사서의 도움 경험, 그리고 교과 연계 도서 선호도는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학년 이상의 고학년 초등학교 대상의 발달 단계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gnitive developmental stages on library behaviors, reading tendency and perception on the library of the elementary students. For this study, a cognitive development test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students in their fourth and sixth grades in thre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the survey data. As a result, sixth grade students with the higher cognitive development had more requests for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than fourth grade students did. However, sixth grade students use library less and preferred to focus on the books for fun and personal interests, comparing with the fourth grade students. Their high level of cognitive development did not always have a positive effect on library behaviors and reading tendency. In addition, perception on the library of sixth grade students was lower than that of fourth grade students and it was influenced by library behaviors and reading tendency. It was also influenced positively by frequent use of library, active support by librarians and reading curriculum-related books. Based on the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school library service should be provided based on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tudents.

키워드: 학교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이용행태, 독서성향, 도서관 인식, 초등학교 고학년  
school library services, library behaviors, reading tendency, perception on library,  
upper-grade elementary students

\* 본 연구는 이은경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의 요약본임(2017.8).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ekyung09@gmail.com)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kim@yonsei.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7년 8월 22일 ■ 최초심사일자: 2017년 8월 31일 ■ 게재확정일자: 2017년 9월 9일

■ 정보관리학회지, 34(3), 179-207, 2017. [http://dx.doi.org/10.3743/KOSIM.2017.34.3.17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방법을 처음 배우고 습관화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도서관 이용도가 낮아지고, 독서에 대한 흥미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고, 13~14세를 그 결정적인(critical) 연령으로 보고 있다(MORI, 2003).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에 대한 열의나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쓰기 태도와 창의적 사고력에서 부(否)적인 발달 양상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쓰기 능력 발달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부(否)적인 발달 양상을 보이며, 이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속된다고 한다(가은아,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01). 즉, 6학년들의 학습 의욕 저하, 도서관 이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6학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주며 결국 자기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6학년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발달 차이가 도서관의 이용행태와 독서성향 및 도서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독서능력 개발과 도서관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학년과 발달단계에 맞는 고객 중심적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 1.2 연구 범위 및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는 인지발달을 독해력과 사고력으로 측정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의 인지발달 차이에 따라 학교도서관 이용행태, 독서성향, 도서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인지발달에 따라 도서관 이용행태와 독서성향은 차이가 있는가?
2. 도서관 이용행태와 독서성향은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아동발달의 이해

초등학생 아동기를 프로이드는 리비도(본능적 욕구)가 무의식 속에 억압된 시기로 학교교육을 통해 도덕적 가치, 사회적 기술습득의 점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았고, 피아제는 사고과정의 논리적 체계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보았으며, 에릭슨은 인지적,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개발을 통해 근면성이 발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이영옥, 이정숙, 2011).

아동기 발달은 크게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로 분류할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은 발달과정 중 아동기에 속한다. 아동기에는 신장과 체중이 사춘기 전까지 비교적 완만한 성장을 보인다(이사라, 2009). 그러다 키와 몸무게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2차 성징이 나타

난다. 이때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사춘기가 먼저 시작된다(허정, 2009).

아동기 인지발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직관보다 논리적인 조작이나 규칙을 만들어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감정과 사고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지향적 특징을 가진다(정옥분, 2013). 인지발달은 사고의 변화과정이며, 정보를 지각하고, 이해하며 평가할 수 있는 습득과정을 뜻한다. Piaget(1970)는 각 연령에 맞는 인지발달이 이루어진 다음에 학습이 가능하며, 현재의 발달 수준을 넘어선 교육을 제시하면 학습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동기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 사회다. 학교에서의 경험은 아동기의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주요 영향요인이 되며(신명희 외, 2010), 이 시기에는 근면성 또는 열등감이 형성된다(Erikson, 1963). 이는 학교에서 학업 성취를 친구관계에서 인정을 받으면 근면성이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자아에 대한 개념과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정서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동 전기에는 지능, 친절함과 같은 추상적이고, 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아동 중기가 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 아동기 사회·정서적 발달에는 가정, 학교 그리고 또래집단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또래집단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은 또래와의 우정 속에서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얻고, 역할 모델을 통해 인지능력이 발달하며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2.2 인지적 발달단계와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의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간 차이

아동의 인지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Piaget, 1973).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생기는 인지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화와 조절의 인지활동을 한다. 동화란 이미 알고 있는 인지구조 속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조절은 자신의 인지구조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적합하지 않을 때 자신이 갖고 있던 도식을 새롭게 변화하는 인지과정이다. 동화와 조절을 통해 인지 갈등이 균형을 이루면서, 높은 인지수준에 이르면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인지구조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조작(Operation)의 발달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조작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에 따라 인지발달 단계를 구분하였다. 약 2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은 전 조작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논리적인 정신작용이 발달하기 전 단계로 자기중심성과 직관적 사고가 가장 잘 드러난다. 직관적 사고는 지각적으로 대상의 특성을 통하여 성격을 파악하려는 사고를 의미한다. 7세에서 11세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작기는 논리적인 정신작용이 발달하지만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사물과 상황에 맞는 것에 대해서만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11세 이후, 형식적인 조작기는 모든 상황에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은 전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6학년의 인지발달 수준은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다. 1994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은 구체적 조작기 86.8%, 과도기 12.8%, 형식적 조작기 0.4%로 조사되었고(강심원, 1994), 2012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구체적 조작기가 61.6%, 과도기가 27.8%, 형식적 조작기가 11.15%로 나타났다(강철웅, 2012). 이를 통해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들이 예전보다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학생들은 대부분 구체적 조작기임을 알 수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지발달 연구는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교수법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수향(1994)은 창의적 사고력이 6학년보다 4학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비판적, 수동적 사고력이 강조되는 학교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창의적이고 확산적 사고력이 후퇴되는 일면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용석(2016)은 수학교과의 4학년 분수 단원에서 학습자중심 수업이 교사중심 수업보다 추론능력, 학습내용에 대한 재생력, 학습하지 않은 지식의 생성력과 같은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현선(2001)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지발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놀이 유형도 신체를 위주로 하는 활동적 놀이에서 복잡한 규칙을 적용시키는 상징적 놀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교과수업이나 놀이 유형 등에서 인지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창의적 사고력에서 부(否)적인 발달로 변화하는 지점이 초등학교 5학년

과 6학년이라고 한 것은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단계에 주목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2.3 학교도서관 이용행태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 이용자의 요구, 정보추구의 행태를 파악하고, 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초등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 횟수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2회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 방문 목적은 독서 및 자율학습을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하였고, 정보검색 시간 사용은 하루 1시간 미만이었다. 정보에 대한 선호는 4학년과 6학년 학생이 스포츠, 5학년 학생은 게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요구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였다(김소연, 2011; 서미연, 2004). 목적에 따른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에서는 독서를 위해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가장 컸다. 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도서관의 중요성 인식도 커지고, 인터넷 이용이 많으면 도서관 이용도 많아지며, 인터넷 이용 만족도가 크면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인터넷 곤란도가 크면 도서관에 대한 곤란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교육에 있어서는 정보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고, 학교구성원에 맞는 교육을 했을 때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사서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이용교육 개선 방법으로 사서의 직무연수에 이용교육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려은, 2016; 이소희, 2017).

학교도서관에서 다대출 학생은 도서관에 대해 접근하기 편하고, 이용이 용이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서가만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대출 학생의 독서성향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주로 시리즈물이나 문학류 위주의 특정 도서에 집중되어 있었다. 스스로 다대출하는 학생은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가 높았으나 부모가 주도하는 다대출 학생의 경우는 독서태도의 결과가 일반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부모가 주도하면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경, 2015).

## 2.4 독서성향

독서성향이란 독서에 대한 흥미, 독서방법, 독서태도, 습관, 선호하는 책의 종류, 독서시간 및 정도, 독서환경, 독서능력, 독서경향, 독서경험, 독서활동 등 독서에 관련된 특성이다(김지은, 2013). 초등학생의 독서성향을 보면 저학년은 그림동화와 옛이야기를 선호하고,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사실동화를 주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과 관련한 비슷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삶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였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학년별로 자신의 문제가 다르고, 범위도 다르며,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 동화 선호경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이정순, 2013).

한편 이경미의 연구(2006)에서는 학년이 올

라갈수록 독서 필요성과 독서 인식이 낮게 나왔다. 이 조사에서 학생들은 평소 여가활동에서 컴퓨터, 인터넷, TV나 비디오 시청이 주를 이루었으며, 독서를 한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독서는 아침 자습시간과 수시로 하는 비율이 많았고, 독서 저해 요인으로는 학원이나 과외 공부, TV, 컴퓨터 게임의 순으로 나왔다. 학생들은 만화를 주로 읽고 위인전, 세계 명작동화, 추리·탐정·모험 이야기, 공포 이야기, 우리나라 창작동화, 공상과학, 역사, 지리 이야기 순으로 읽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초등학생의 독서를 위해 학교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독서지도와 함께 가정에서도 독서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때 독서지도의 내용은 독서 자료선정이나 자료안내, 독서방법, 다양한 독후활동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4~5학년은 독서프로그램에서 소집단 활동 및 토의, 토론, 시 짓기 등에 선호를 나타내고,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독서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김영은, 2010; 성배순, 2009). 여기에서 연구자들은 개인별 맞춤형 독서태도 지도가 학생들의 독서경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줄글 독서량을 증가시켜 주며 만화 독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 대상의 일률적인 권장도서 안내와 같은 독서지도가 아닌 학생 개인별 독서능력과 독서성향에 맞춘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2.5 도서관 인식

초등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LibQUAL+를 이용한 학교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 사서와의 관계 및 사서의 태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초등학생들이 독서 및 자율학습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사서의 서비스 영향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소연, 2011).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역량을 강화 시키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의 공유가 교육청 등 기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경, 2015).

초등학교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저학년은 학교도서관을 공부와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곳으로 인식하였다. 5학년과 6학년의 경우에는 취미나 교양을 위한 독서공간이라고 인식하였고, 특히 3학년과 5학년은 도서관을 시간소비와 여가의 장소로 인식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의 독서지도가 학생들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곽선희, 2010; 신유립, 2013).

독서교육에서 텍스트의 난이도보다 개별적인 학생들의 독서능력이나 독서흥미, 태도, 독서전략이 독자반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년에 맞는 도서를 추천할 때는 텍스트 위주로 선정하기보다는 독자의 특정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적합한 독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양경화, 2016).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인지발달에 따른 이용행태, 독서성향, 도서관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이해한 후, 학교도서관 이용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학교도서관의 인지발달을 고려한 서비

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예비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도서관 이용감소 원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4학년과 6학년 간의 도서관 이용 특성과 차이점을 심층면담을 통해 탐색하였다. 심층면담은 서울시 초등학교 1개 학교의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3명씩 소규모 표적집단 면담법(Focus group interview)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2014년 11월 24일, 27일에 하루 한 학년씩 면담을 진행하였다. 4학년은 54분, 6학년은 1시간 20분 동안 면담하였다. 면담에서는 비구조화된 질문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도서관 이용과 요구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후 분석하였다. 녹취록을 통해 면담 내용을 핵심어구, 단어를 중심으로 도서관 이용행태, 정보요구, 도서관 인식으로 구조화하여 분석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 6학년 학생의 도서관 이용감소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데서 기인하였다. 도서관을 재미있는 책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대부분의 6학년 학생들은 도서선정 시 재미나 흥미 위주의 만화책이나 잡지책을 선택했다. 또한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해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필독도서나 교과연계 도서 위주의 윤독도서 프로그램<sup>1)</sup> 도서는 부담스러워 하며 독서에 대한 거부감마저 갖고 있었다.

4학년과 6학년의 가장 큰 특징은 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6학년 면담학생 스스로 도서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춘기라는 대답이 있는 것은 6학년의 인지발달, 신체, 심리, 사회발달 측면에서 4학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학교도서관에서 또래와 함께 이용하면서도 별도의 공간에서 자기들의 독서, 공부에 대해서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이용하기를 원했다. 공부할 땐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해받지 않고 독서에 몰입하고 싶어 했다. 또한 지적 탐구를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즐거움과 편안함을 얻길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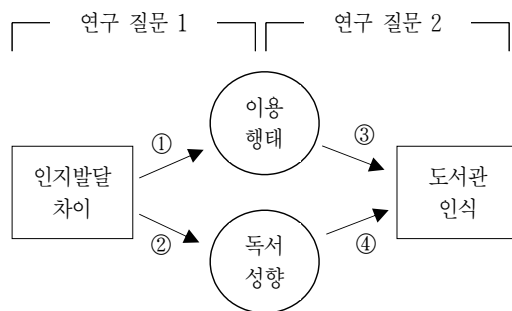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예비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년의 차이에 따른 이용행태나 독서성향과 도서관 인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 3.2 연구 모형과 가설

초등학생의 도서관 이용에 있어 학년 간, 인

지발달 차이가 이용행태, 독서성향, 도서관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으로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질문 1에서는 인지발달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인지발달 차이가 도서관 이용행태와 독서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연구 질문 2에서는 도서관 이용행태와 독서성향이 도서관 인식 요인 중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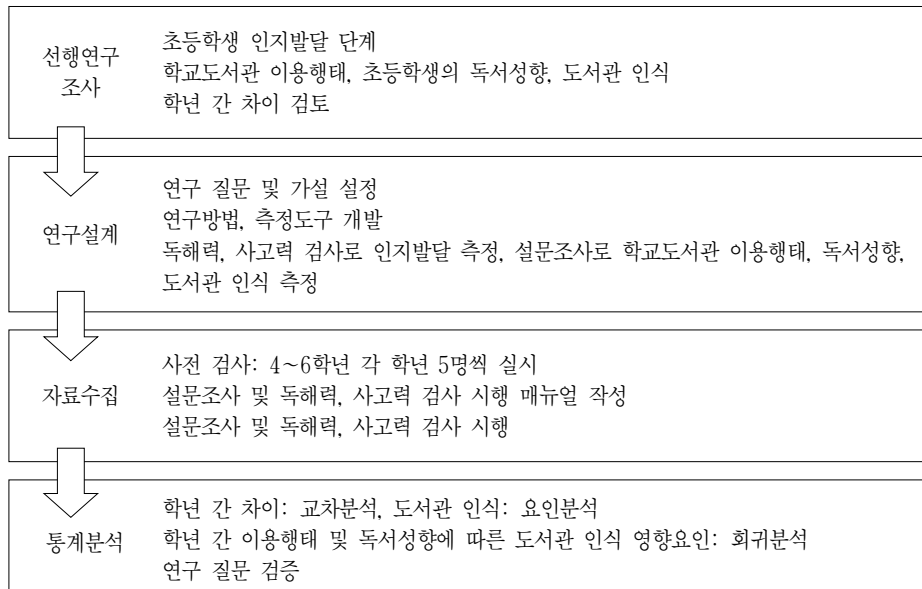
- 가설 1. 인지발달의 차이는 도서관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 가설 2. 인지발달의 차이는 독서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 가설 3. 도서관 이용행태는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 가설 4. 독서성향은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 ①~④번호는 가설의 번호

<그림 1> 연구 모형

1) 윤독도서 프로그램: 약 30여권의 책 바구니를 만들어 학급에서 한 달 동안 읽고 옆 반으로 바구니를 돌려가며 읽는 독서프로그램



〈그림 2〉 연구 절차

### 3.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A, B, C 초등학교 세 곳의 4학년과 6학년 각 4학급씩을 선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 D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받아 각 학교의 2015년 대출통계를 기준으로 4학년과 6학년의 대출자료 수와 이용자 수에서 차이가 보이는 3개교를 선정하였다.

### 3.4 설문 문항 및 조사 도구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인지적 발달을 독해력과 사고력을 측정 범주로 정하여 주관식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용행태, 독서성향은 객관식 선택형 문항으로, 도서관 인식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인지발달 검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사전 설문조사를 하여 초등학교 4학

년과 6학년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검사 도구는 설문조사 객관식 43문항과 인지발달 검사 주관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참조).

독해력은 권이은(2015)의 『초등학생의 정보 텍스트 독해 양상 검사』 연구에서 사용한 독해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독해력 검사는 주관식으로 6개 문항의 2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검사시간은 30분이었으며, 검사시행과 채점결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채점결과 6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고, 학년에 따라 독해력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균값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사고력은 한국교육개발원(1991)의 비판적 사고력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주관식 서답형 7개 문항의 113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시간은 40분이며 검사 시행과 채점 결과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채점결과 7항목의 점수를

〈표 1〉 설문 및 인지발달 검사 문항과 문항의 수

측정범주	설문 내용	문항수	척도	출처	
이용 행태	이용 (10)	누구와 이용 하나요	1	선택형	김려은(2016) 김지원(2009) 오수연(2010) 육지혜(2016) 이경미(2006)
		이용 횟수	1		
		독서량	1		
		하루 평균 독서시간	1		
		독서하는 장소	1		
		독서하는 시간	1		
		자료검색 방법	2		
		도서관 이용 목적	1		
		도서관 비이용요인	1		
	서비스 (3)	이용자 교육 경험	1		
		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1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1		
	독서 성향	자료선호도 (5)	가장 많이 읽는책(1~3순위)		
읽고 싶은 책의 주제			1		
자료 형태			1		
도서선정 (4)		도서 선택 방법(1~2순위)	2		
		도서 선택 시 도움(1~2순위)	2		
독서교육		필요한 독서교육	1		
도서관 인식	가치 (11)	도서관	3	리커트 5점	곽미선(2006) 오해연(2015) 장해숙(2014)
		사서	2		
		이용자 교육	1		
		독서	4		
		이용목적	1		
	만족도 (6)	자료	2		
		위치	1		
		시설	2		
		냉난방	1		
인구학적 특성(3)	학교/학년/성별	3	선택형		
인지 발달	독해력 (6)	단편적 사실, 과정	2	서답형 주관식 (총점 20점)	권이은(2015)
		과정	2		
		이유나 까닭	2		
	사고력 (7)	사실과 의견 구분	1	서답형 주관식 (총점 113점)	조수향(1994) 한국교육개발원 (1991)
		증거 사용	1		
		정보원 선택	1		
		다양한 관점	1		
		편견 탐지	1		
		숨겨진 가정 확인	1		
		적합한 평가 기준	1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독해력 검사와 사고력 검사의 채점결과에 대한 기준은 선행 연구를 이용하여 점수화하였고, 3개의 학교에서 동일한 기준에서 검사가 되도록 기준 안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 3.5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1차로 4학년, 6학년의 설문조사와 독해력, 사고력 사전검사를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차로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총 470부의 설문과 검사지가 회수 되었다. A학교 11부, B학교 12부, C학교 15부에서 중복된 답을 체크하거나 설문과 인지검사를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불성실 답변이 나타났다. 그리고 B학교에서 실시한 4학년 중 2개 학급의 설문 및 검사지 42부는 시험 시행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39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한 설문지와 검사지는 SPSS ver.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처리는 모두 유의수준 95%에서 진행하였다.

### 3.6 도서관 인식 요인분석

도서관 인식 요인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도

서관 인식은 5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정보제공가치, 물리적 충분성, 독서흥미, 필요성, 환경으로 요인을 구분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65.97%이며, 유의성 검증을 위한 KMO(Kaiser-Meyer-Olkin) 값은 .92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대한 Approximated  $\chi^2$ 은 2747.503,  $p < .001$ 로 유의하여 도서관 인식 요인 척도에서 5개의 요인 추출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정보제공가치 요인 0.89, 물리적충분성 요인 0.66, 독서흥미 요인 0.72, 필요성 요인 0.57으로 필요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0.60을 초과하여 수용 가능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 4. 분석 결과

### 4.1 대상의 일반적 특성

설문과 검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학교별 분포에서 A학교가 139명(35.6%), B학교 123명(31.5%), C학교 128명(32.8%)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에서는 4학년이 194명(49.7%), 6학년 196명(50.3%)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학생이 173명(44.4%), 여학생이 217명(55.7%)로 여학생의 응답률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 4.1.1 도서관 이용행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은 주로 도서관에 친구와 함께 가고, 주 1회 도서관을 이용하며, 한달 독서량은 10권 이상을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독서는 주로 집과 학교에서

〈표 2〉 학교도서관 인식 요인분석

항목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정보 제공 가치	물리적 충분성	독서 흥미	필요성	환경 요인	공통성	
학교도서관은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	.739	.085	.107	.030	.228	.618	.894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다	.735	.316	.078	.167	-.030	.675	
이용을 위해 충분한 가치가 있다	.726	.257	.146	.258	.097	.628	
사서는 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707	.099	.229	.161	.199	.658	
사서가 제공하는 정보 유용하다	.658	.307	.035	.292	.211	.619	
이용자 교육이 이용목적에 도움이 된다	.649	.354	.224	.128	.075	.594	
도서관서비스가 잘 이루어고 있다	.550	.260	.016	.080	.467	.558	
자료 수는 충분하다	.507	.481	-.032	.066	.254	.660	
시설물(서가, PC, 복사기) 이용이 편리 위치에 만족한다	.296	.744	.061	.015	.121	.563	.662
최신 자료를 갖추고 있다	.171	.650	.047	.330	.027	.610	
저자의 생각을 비교하며 독서한다	.321	.610	.246	.050	.268	.743	.725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비판을 잘한다	.092	.104	.847	-.078	.014	.715	
책을 읽고, 책 속 내용에 빠져든다	.189	.170	.796	.122	-.039	.646	
독서할 때 책 속 내용에 빠져든다	.092	-.111	.657	.349	.267	.740	.570
독서는 꼭 필요하다	.366	.105	.291	.709	-.085	.740	
학교도서관은 꼭 필요한 곳이다	.209	.310	-.017	.652	.389	.717	
냉·난방은 잘되어 있다	.267	.189	.103	.084	.810	.780	
Eigen-value	4.049	2.245	2.090	1.423	1.409		
분산설명(%)	23.819	13.207	12.295	8.372	8.266		
Kaiser-Meyer-Olkin					.92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747.503	
					자유도	136	
					p	<.001	

하고, 학교도서관 자료를 찾을 때 사서의 도움 보다는 대충 서가에 가서 찾는다.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독서를 위해서라고 하였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도서관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학교도서관에 요청한 서비스 유형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찾아달라는 것을 가

장 많이 했으며, 가장 우선해야 하는 서비스는 독서교육이라 하였다(〈표 3〉 참조).

#### 4.1.2 독서성향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이 주로 읽는 책은 만화, 판타지, 추리·탐정 소설 등의 장르문학<sup>2)</sup>이고, 과학, 사회, 요리에 관한 주제를 선호하였다. 종이책을 전자책 단말기나 휴대폰을 이용한 전

2) 장르문학은 특정 장르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식화된 틀, 소재의 반복을 통해 일정한 패턴에 맞춰 쓰이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SF, 호러, 추리, 판타지, 로맨스 소설 등 개별 장르를 가리키는 말이다(김지민, 2017).

〈표 3〉 도서관 이용행태

구분	항목	응답수(명)	비율(%)
학교도서관 자료검색 방법 (N=388)	대충집작으로 서가에서 찾음	156	40.0
	사서선생님께 문의	117	30.0
	검색도구를 이용	58	14.9
	친구	37	9.5
	부모님	12	3.1
	선생님	8	2.1
과제해결 시 자료조사 방법 (N=387)	인터넷 자료	257	65.9
	교과서 및 참고서	90	23.1
	학교도서관 자료 이용	35	9.0
	사서선생님께 문의	5	1.3
요청한 정보서비스 유형 (N=381)	원하는 자료의 정보 안내	184	47.2
	도서관 이용 안내	65	16.7
	도서 추천	59	15.1
	자료검색 방법, 과제해결	54	13.8
	도서구입 신청	19	4.9
우선해야 할 서비스 (N=389)	독서교육	175	44.9
	도서추천	80	20.5
	도서관 행사	48	12.3
	과제해결 도움	35	9.0
	정보활용교육	26	6.7
	독서상담	17	4.4
	독서치료	8	2.1

〈표 4〉 도서 선정 시 이용하는 정보

직접	추천	광고 온라인	베스트 셀러 목록	드라마 영화 원작	기타	광고 오프라인	N	결측	단위
195 (50)	90 (23.1)	34 (8.7)	23 (5.9)	22 (5.6)	20 (5.1)	5 (1.3)	389 (99.7)	1 (0.3)	명 (%)

자책보다 선호하였고, 책을 선정할 때는 직접 선택, 추천, 온라인 광고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독서교육은 글쓰기와 토론방법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4.1.3 도서관 인식 정도

도서관 인식 정도를 정보제공가치 요인, 물리

적 충분성, 독서흥미, 도서관의 필요성, 환경 요인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5점 척도 평가에서 정보제공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충분성에서 시설 이용 편의성은 평균 3.87, 위치 만족도는 평균 4.15, 최신자료 충족 수준의 평균은 3.81이다. 독서흥미에 관한 정도는 내생각과 저자의 생각을 비교하며 책을 읽는 수준의 평균은 3.42, 책

을 읽고 비판을 잘하는 정도의 평균은 3.60, 책 속에 몰입하는 정도의 평균 4.02로 나왔다. 독서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 4.5, 학교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 4.55로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냉·난방 시설에 대한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평균 4.53으로 나타났다.

#### 4.2 가설 검증

- 가설 1. 인지발달에 따른 도서관 이용행태의 영향

첫 번째로 학년에 따른 독해력과 사고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학년에 따른 이용행태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하였다.

- 가설 1.1 인지발달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독해력은 학년 간의 차이를 보였다. 4학년 남

학생과 6학년 남학생 간( $t(170) = -3.70, p < .001$ )과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 $t(173) = -4.03, p < .001$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5〉 참조).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남학생( $t(173) = -2.89, p < .01$ )과 4학년 남학생, 6학년 여학생( $t(182) = -5.09,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고력의 경우도 학년 간의 차이를 보였다. 4학년 남학생과 6학년 남학생 간( $t(170) = -3.10, p < .001$ )과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여학생( $t(214) = -3.57,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학년 남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 $t(211) = -5.38, p < .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남학생 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참조).

- 가설 1.2 인지발달에 따라 도서관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 친구와 함께 가는 항목에서는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에( $\chi^2 = 11.65, p < .01$ ), 6학년 여학생과 6학년 남학생( $\chi^2 = 8.68, p < .05$ )에서,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남학생( $\chi^2 = 8.91,$

〈표 5〉 학년 간 차이에 따른 독해력 검사

	학년(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독해 총점	4학년(남)	95	11.90	4.45	-3.70***	170
	6학년(남)	77	14.48	4.64		
	4학년(남)	95	11.90	4.45	-5.09***	182
	6학년(여)	118	14.80	3.70		
	4학년(여)	98	12.32	5.06	-4.03***	173
	6학년(여)	118	14.80	3.70		
	4학년(여)	98	12.32	5.06	-2.89**	173
	6학년(남)	77	14.48	4.64		

\*  $p < .05$  \*\*  $p < .01$  \*\*\*  $p < .001$

〈표 6〉 학년 간 차이에 따른 사고력 검사

	학년(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사고력 총점	4학년(남)	95	69.35	13.825	-3.10***	170
	6학년(남)	77	75.83	13.395		
	4학년(여)	98	72.83	14.179	-3.57***	214
	6학년(여)	118	79.74	14.150		
	4학년(남)	95	69.35	13.825	-5.38***	211
	6학년(여)	118	79.74	14.150		
	4학년(여)	98	72.83	14.179	-1.426	173
	6학년(남)	77	75.83	13.395		

\*  $p < .05$  \*\*  $p < .01$  \*\*\*  $p < .001$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학년은 도서관에 혼자 가는 비율이 6학년 보다 높고, 6학년은 친구와 함께 가는 비율이 4학년보다 높다.

이용 횟수에서는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 $\chi^2=58.9, p < .001$ )의 차이가 가장 컸다. 또한 4학년 남학생과 6학년 남학생 간( $\chi^2=32.58, p < .001$ )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남학생 간, 4학년 남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이용 횟수에서 6학년은 주 1회에서 월 1회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4학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 $\chi^2=16.52, p < .01$ )보다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즉, 4학년이 6학년보다 이용을 많이 하고, 4학년 중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달 독서량에서도 4학년은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는 비율이 60% 이상 인 반면 6학년은 평균 20% 내외였다. 4학년과 6학년 남학생 간( $\chi^2=21.26, p < .001$ )의 차이 보다 4학년 남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 $\chi^2=51.39, p < .001$ )의 차이가 더 컸다.

6학년 여학생은 전혀 읽지 않거나 한 달에 1~2권의 독서를 하는 학생이 4학년 보다 많았다. 이

는 6학년 여학생이 독서에 대한 흥미가 다른 학년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 횟수와 한 달 독서량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가장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4학년 여학생과 독서 흥미가 낮은 6학년 여학생( $\chi^2=60.13, p < .001$ )의 한 달 독서량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4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간( $\chi^2=12.08, p < .01$ )에서, 6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간( $\chi^2=11.14,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4학년과 6학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실에서 독서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가정에서 학교라는 사회로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루 평균 독서시간에서는 4학년과 6학년 모두 하루 평균 30분에서 1시간 이내 독서를 하고,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비율이 4학년 보다 6학년에서 높았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았다. 4학년과 6학년 남학생 간( $\chi^2=20.07, p < .001$ ), 4학년과 6학년 여학생 간( $\chi^2=10.43,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도서관 자료검색 방법에서 4학년과 6학

년 모두 대충 서가에서 브라우징을 통해 찾고, 그 다음 사서에게 문의하였는데 4학년 남학생과 6학년 남학생( $\chi^2=15.73$ ,  $p<.05$ )에서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4학년이 높고, 검색도구를 이용하는 비율은 6학년이 높았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조사 방법에서 4학년 남학생과 6학년 남학생 간( $\chi^2=12.51$ ,  $p<.01$ )에서,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 $\chi^2=18.98$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학년 모두 인터넷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4학년은 교과서나 참고서를 이용하거나, 학교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반면 6학년은 인터넷 자료검색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에서 4학년 남학생과 6학년 남학생 간( $\chi^2=15.55$ ,  $p<.05$ )에서,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 $\chi^2=19.68$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학년 모두 독서활동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지만 6학년이 4학년보다 개인적인 학습이나 과제해결을 위한 이용이 많았다.

학교도서관에서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4학년 남학생과 6학년 남학생 간( $\chi^2=7.23$ ,  $p<.05$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학년 남학생이 도서관에 주로 요구하는 서비스는 원하는 자료나 도서관 이용 안내를 6학년보다 많이 요구했고, 6학년 남학생은 과제해결, 도서구입 신청 등을 4학년보다 많이 요구하였다.

학교도서관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서비스에 대해서는 두 학년 모두 독서교육, 도서 추천, 도서관 행사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그 밖의 항목에서는 6학년 여학생은 과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수가 4학년 남학생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4학년과 6학년의 이용행태에서 가장 주목해 볼 것은 6학년 여학생의 독서흥미가 4학년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4학년에 비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6학년 여학생은 자료에 대한 문의와 과제해결을 위한 검색방법과 같은 요구를 더 많이 하고, 특히 우선해야 할 서비스로 과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4학년 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행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지발달에 따라 도서관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사고력과 독해력을 통해 측정된 인지발달에서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높지만, 이용 횟수, 하루 평균 독서시간, 한 달 독서량 등에서는 4학년이 6학년 보다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인지발달과 도서관 이용행태 간의 항목들은 부(否)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6학년 학생은 과제해결이나 도서구입 신청, 자료의 정보 안내에 대한 서비스 요청이 4학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인지발달과 도서관 이용행태가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 • 가설 2. 인지발달에 따른 독서성향의 영향

학년 차이에 따른 독서성향 검증을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였다.

〈표 7〉 학년·성별에 따른 도서관 이용행태

이용행태	항목	학년(성별)							
		4(남)	6(남)	4(여)	6(여)	4(남)	6(여)	4(여)	6(남)
한 달 독서량	읽지 않음	1	2	0	3	1	3	0	2
	1~2권	10	15	8	40	10	40	8	15
	3~5권	11	22	12	29	11	29	12	22
	6~9권	13	16	13	27	13	27	13	16
	10권 이상	60	22	65	19	60	19	65	22
	N	95	77	98	118	95	118	98	77
	$\chi^2$	21.26***		60.13***		51.39***		26.49***	
과제해결 자료조사 방법	인터넷 자료	52	60	51	93	52	93	51	60
	교과서 및 참고서	35	11	27	17	35	17	27	11
	사서선생님께 문의	1	1	1	2	1	2	1	1
	학교도서관 자료 이용	7	3	18	6	7	6	18	3
	N	95	75	97	118	95	118	97	75
		$\chi^2$	12.51**		18.98***		15.93***		15.62***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	독서활동	46	26	52	37	46	37	52	26
	대출 및 반납	30	20	30	40	30	40	30	20
	과제 해결	0	9	1	16	0	16	1	9
	개인적인 학습	9	10	9	11	9	11	9	10
	도서관활용수업	1	3	1	3	1	3	1	3
	휴식	8	8	3	9	8	9	3	8
	N	94	76	96	116	94	116	96	76
	$\chi^2$	15.55*		19.68***		17.55**		18.31***	
요청한 정보서비스 유형	항목	학년(성별)							
		4(남)		6(남)		6(남)		6(여)	
	도서관 이용 안내	23		12		12		14	
	원하는 자료 정보 안내	40		28		28		66	
	검색방법, 과제 해결	10		12		12		19	
	도서 추천	16		14		14		13	
	도서구입 신청	3		9		9		5	
	N	92		75		75		117	
	$\chi^2$	7.23*				9.54*			
우선 해야 할 서비스	항목	학년(성별)							
		4(남)				6(여)			
	독서교육	50				48			
	도서추천	19				21			
	도서관 행사	12				12			
	정보활용교육	6				7			
	독서상담	5				8			
	독서치료	2				3			
	과제해결 도움	1				19			
N	95				118				
	$\chi^2$	15.00*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학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학년과 6학년이 주로 읽는 책의 주제는 판타지, 추리·탐정·모험, 공상과학 등의 장르 문학이고, 4학년 남학생, 6학년 여학생, 6학년 남학생이 4학년 여학생보다 만화, 유머·콩트, 스포츠 등이 포함된 오락성 주제의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 $\chi^2=16.75, p<.01$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6학년은 장르문학, 오락성 주제의 책을 4학년 보다 더 많이 읽고, 4학년 여학생은 장르문학을 외에도 문학, 교육 관련 책을 6학년 보다 더 많이 읽고 있다. 또한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남학생( $\chi^2=12.8, p<.01$ )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학년 여학생들이 다른 부류에 비해 문학, 교육에 대한 지적 요구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4학년 6학년 모두 단행본 형태의 종이책을 선호하지만 6학년 여학생과 6학년 남학생간( $\chi^2=7.98,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학년 여학생이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책을 선호하는 응답이 남학생 보다 많았다.

도서를 선정할 때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4학년과 6학년 남녀 모두 직접 고르는 것을 가

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은 각종 기관, 유명인, 전문가의 추천을 선호하였다. 4학년 여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 $\chi^2=28.62,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학년 여학생이 온라인 광고(SNS, 팟캐스트, 인터넷 광고 등)를 이용하는 비율이 4학년 여학생에 비해 높았고, 4학년 여학생은 추천을 선호하였다.

필요한 독서교육에서 4학년과 6학년 모두 글쓰기와 토론 방법이라 하였다. 4학년 남학생과 6학년 여학생 간( $\chi^2=11.14,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6학년 여학생은 글쓰기와 토론 방법을 4학년 남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4학년 남학생은 책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6학년 여학생보다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표 8〉 참조).

이를 종합해보면 독서성향은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인지발달에 따라 독서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인지발달을 측정된 사고력과 독해력은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높지만, 4학년 여학생이 문학,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책에 관심을 보여 높은 지적 욕구를 보여주고 있고, 6학년 학생은 장르문학, 오락 등과 같은 주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

〈표 8〉 학년·성별에 따른 필요한 독서교육

항목	학년(성별)			
	4(남)	4(여)	4(남)	6(여)
글쓰기, 토론 방법	38(40.0)	50(51.5)	38(40.0)	61(52.1)
책을 선택하는 방법	33(34.7)	15(15.5)	33(34.7)	18(15.4)
책을 읽는 방법	14(14.7)	10(10.3)	14(14.7)	19(16.2)
교과서와 연계된 독서지도 방법	10(10.5)	22(22.7)	10(10.5)	19(16.2)
N	95	97	95	117
비율(%)	100	100	100	100
$\chi^2$	13.53**		11.14*	

\*  $p<.05$  \*\*  $p<.01$  \*\*\*  $p<.001$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인지발달과 독서성향이 부(否)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독서교육 항목 등에서는 6학년은 4학년에 비해 글쓰기와 토론, 교과서와 연계된 독서지도 방법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발달과 독서성향이 부적인 관계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가설 3. 도서관 이용행태에 따른 도서관 인식 영향

도서관 인식 차이의 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도서관 이용행태에 따른 도서관 인식 요인은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행태에 대한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였다. 도서관 이용 횟수, 독서시간, 독서량 등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관련이 높은 항목에서 가장 빈도가 높거나 양이 많은 것을 5점을 주었고, 가장 적은 것을 1점을 주어 5점 척도 연속형 범주로 변환하여 검증하였다.

도서관 인식은 요인분석을 통해 정보제공, 물리적 충분성, 독서흥미, 필요성, 환경 요인의 점수로 분석하였다.

• 가설 3.1 학년에 따라 도서관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도서관 인식 정도는 학년 간 차이를 보였다. 정보제공가치 요인, 필요성 요인, 물리적, 충분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고, 6학년이 도서관을 인식하는 정도가 4학년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필요성 요인에 대한 도서관 인식 정도에서 학년 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표 9〉 참조).

• 가설 3.2~3.6 도서관 이용행태는 정보제공가치 요인, 물리적 충분성 요인, 독서흥미 요인, 필요성 요인,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 번째, 도서관 이용행태와 도서관 인식 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이용 횟수(.108\*), 독서 장소(.102\*), 이용 목적(.110\*)은 정보제공가치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용 횟수, 한 달 독서량,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독서흥미와 필요성 요인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하루 평균 독서시간(.228\*\*\*)

〈표 9〉 학년 간 도서관 인식 정도

도서관 인식 요인	학년(성별)	N	m	sd	t
필요성	4(남)	95	4.64	.530	2.309*
	6(남)	77	4.44	.638	
	4(남)	95	4.64	.530	3.687***
	6(여)	118	4.33	.722	
	4(여)	98	4.69	.490	4.441***
	6(여)	118	4.33	.722	
	4(여)	98	4.69	.490	2.923**
	6(남)	77	4.44	.638	

\* p<.05 \*\* p<.01 \*\*\* p<.001

〈표 10〉 도서관 이용행태와 도서관 인식 요인 간의 관계

도서관 이용행태 \ 도서관 인식	정보제공 가치	독서흥미	필요성
이용 횟수(N=376)	.108*	.152**	.233***
한 달 독서량(N=386)	.070	.148**	.301***
하루 평균 독서시간(N=385)	-.007	.228***	.253***
독서 장소 (N=374)	.102*	-.058	-.075
이용 목적(N=380)	.110*	.049	.092

\*  $p < .05$  \*\*  $p < .01$  \*\*\*  $p < .001$

과 한 달 독서량(.301\*\*\*)은 도서관 필요성 요인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번째, 도서관 이용행태에 따른 도서관 인식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11〉과 같이 독서 장소, 정보서비스 요청 항목은 도서관 정보제공가치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2.6% ( $Adj R^2 = .021$ )로 설명해주고, 회귀모형( $F = 4.724, p < .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용 횟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독서흥미 요인에 영향을 5.9% ( $Adj R^2 = .054$ )로 설명하고, 회귀모형( $F = 11.011, p < .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용 횟수, 한 달 독서량, 하루 평균 독서

시간, 우선해야 할 서비스 항목은 도서관 필요성 요인에 영향을 12% ( $Adj R^2 = .113$ )로 설명하고 회귀모형( $F = 12.195, p < .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행태에 따른 도서관 인식요인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도서관이 독서를 하는 곳이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사서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독서를 위한 장소, 도서관 이용 횟수, 하루 평균 독서시간, 한 달 독서량, 도서관에서 우선해야 할 서비스 항목이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독서교육이 학교 도서관

〈표 11〉 도서관 이용행태에 따른 도서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 인식	회귀분석 결과
정보제공 가치	$Y(\text{정보제공가치}) = -.545 + .126*(\text{장소}) + .073*(\text{정보서비스 요청})$ $R^2 = .026, Adj R^2 = .021, F = 4.724^{**}$
독서흥미	$Y(\text{독서흥미}) = -.888 + .95*(\text{이용 횟수}) + .228*(\text{하루 평균 독서시간})$ $R^2 = .059, Adj R^2 = .054, F = 11.011^{***}$
필요성	$Y(\text{필요성}) = -1.896 + .123*(\text{이용 횟수}) + .128*(\text{한 달 독서량}) + .166*(\text{하루 평균 독서시간}) + .139*(\text{우선해야할 서비스})$ $R^2 = .123, Adj R^2 = .113, F = 12.195^{***}$
물리적 충분성	$Y(\text{물리적 충분성}) = -.457 + .153*(\text{이용 횟수}) - .211*(\text{하루 평균 독서시간}) + .100*(\text{우선해야할 서비스})$ $R^2 = .052, Adj R^2 = .044, F = 6.383^{***}$

\*  $p < .05$  \*\*  $p < .01$  \*\*\*  $p < .001$

에서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 가설 4. 독서성향에 따른 도서관 인식 영향

학년에 따른 독서성향 차이의 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독서성향에 따른 도서관 인식 요인에 대한 분석은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독서성향에 대한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였다. 독서성향 항목 중 독서 선호도 측면에서는 교과 주제와 관련이 높은 항목은 5점, 낮은 항목은 1점을 부여하였다. 도서 선정 측면에서는 학교도서관 사서의 추천이나 도움과 관련이 높은 항목은 5점을 주었고, 도서관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1점을 주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검증하였다.

- 가설 4.1~4.5. 독서성향은 정보제공가치 요인, 물리적 충분성 요인, 독서흥미 요인, 필요성 요인,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 번째, 독서성향과 도서관 인식 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주로 읽는 책, 선호하는 책의 주제, 도서 선정 시 이용하는 정보, 도서 선정 시 도움 주는 사람과 도서관 인식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독서성향의 항목에서 도서선정 시 도움을 주는 사람(.183\*\*\*)과 정보제공가치 요인이, 선호하는 책의 주제(.168\*\*\*)와 독서흥미 요인이, 주로 읽는 책의 주제(.219\*\*\*)와 필요성 요인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번째, 독서성향이 도서관 인식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 도서선정 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정보제공가치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3.3%(Adj. R<sup>2</sup>=.030)로 설명하고, 회귀모형(F=12.68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선호하는 주제가 독서흥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2.8%(Adj. R<sup>2</sup>=.026)로 설명되고, 회귀모형(F=10.86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주로 읽는 책의 주제가 도서관 필요성 요인에 영향은 5%(Adj. R<sup>2</sup>=.047)로 설명되고, 회귀모형(F=19.578,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교과와 연계된 도서의 선호와 도서 선정 시 사서의 도움이 도서관 인식 중 정보제공가치, 도서관 필요성, 독서흥미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

〈표 12〉 독서성향과 도서관 인식요인 간의 관계

독서성향	도서관 인식	정보제공가치	독서흥미	필요성
주로 읽는 책의 주제(N=376)		.087	.063	.219***
선호하는 책의 주제(N=380)		.019	.168***	.072
도서 선정 시 이용 정보(N=385)		.003	.011	-.037
도서선정 시 도움(N=385)		.183***	.007	.023

\* p<.05 \*\* p<.01 \*\*\* p<.001

〈표 13〉 독서성향에 따른 도서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 인식	회귀분석 결과
정보제공가치	Y(정보제공) = $-.475 + .178*(\text{도서 선정 시 도움})$ $R^2 = .033, \text{Adj. } R^2 = .030, F = 12.681^{***}$
독서흥미	Y(독서흥미) = $-.393 + .105*(\text{선호 주제})$ $R^2 = .028, \text{Adj. } R^2 = .026, F = 10.865^{***}$
필요성	Y(필요성) = $-.417 + .192*(\text{주로 읽는 책의 주제})$ $R^2 = .050, \text{Adj. } R^2 = .047, F = 19.578^{***}$

\*  $p < .05$  \*\*  $p < .01$  \*\*\*  $p < .001$

은 즐거움을 위한 자료나 정보보다도 교과와 연계된 정보를 제공 받을 때 도서관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 4.3 토의

6학년은 인지발달, 즉 사고력 및 독해력에서 4학년보다 앞서고 있지만 도서관 이용과 독서량, 독서시간은 뒤지고 있다. 4학년이 6학년에 비해 인지발달이 낮아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 한 달 독서량, 하루 평균 독서시간이 6학년보다 더 많았으며,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한 비율이 4학년보다 6학년이 더 높았다. 자료검색에 있어서는 4학년, 6학년 모두 대충 서가에서 브라우징 방법으로 찾고, 그 다음 사서에게 문의하였는데 6학년은 4학년에 비해 스스로 검색하는 비율이 높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검색 방법이나 과제해결에 대한 요청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검색 방법에서 4학년과 6학년 모두 직접 가서 찾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자료를 직접 찾아보려는 주도적인 행동이거나 검색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고학년도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도서관은 각 학년 인지수준에 맞

는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함을 보여준다. 도서관 이용목적으로 6학년은 4학년에 비해 과제해결이나 개인적인 학습을 위해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 이들이 인터넷이나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독서성향에서도 주로 읽고 있는 책의 주제를 보면 4학년 여학생의 성향이 두드러진다. 4학년 여학생은 판타지, 추리·탐정·모험, 공상과학 소설 뿐 아니라 문학, 교육 관련 책을 4학년 남학생이나 6학년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지적 욕구가 가장 높다. 반면에 6학년은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오락성 주제의 책을 4학년보다 더 선호하였다.

이처럼 6학년 학생은 도서관 이용률과 독서량이 4학년에 비해 낮고, 독서도 덜하고 있지만 스스로 정보검색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래집단끼리 도서관을 같이 오는 비율이 4학년보다 높으며, 학교도서관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서비스로 독서교육을 꼽고 있다. 또한 자료에 대한 문의와 과제해결을 위한 검색방법과 같은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요청을 4학년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서비스로 과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 응

답한 비율이 4학년보다 많았고, 글쓰기와 독서 토론, 책을 선택하는 방법, 책을 읽는 방법,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를 학교도서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설 검증을 통해 보았듯이, 6학년 학생의 인지발달 단계는 4학년에 비해서 높고, 요구사항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행태, 독서성향, 도서관 인식에서 4학년에 비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6학년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그들의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아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 또한 인지발달과 함께 독서능력이나 독서흥미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독서능력의 저하라기보다는 또래집단과의 놀이 활동처럼 다양한 사회화 과정의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학습하는 과정으로 건강한 자아와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Waters & Sroufe, 1983). 그런 점에서 6학년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 저하, 독서시간 감소, 독서량 감소는 인지발달의 퇴행이 아니라, 사회화의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6학년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거나 흥미 위주의 책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과 피로감도 있을 수 있다.

6학년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서관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하는 도서관보다는 자연스럽게 또래와

함께 도서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6학년 학생의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독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이용행태, 독서성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상황에 맞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6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한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고학년 발달 단계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며,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은 6학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개발하고, 도서관 전체의 자료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독서교육을 통해 고학년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6학년 학생들의 인지발달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독서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지원자로서의 학교도서관 역할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서울시 초등학교 3개교의 4학년과 6학년 390명을 대상으로 독해력, 사고력 검사와 설문을 실시하여 인지발달 차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행태, 독서성향, 도서관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해력과 사고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도서관 인식과 독서흥미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독해력과 사고력 검사로 측정된 인지 발달의 차이는 학교도서관 이용행태, 독서성향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인지발달이 높다고 이용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독서성향에 있어 6학년 남녀학생들은 인지발달이 되는 만큼 독서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학년에 비해 장르문학, 만화, 유머·콩트, 스포츠 등이 포함된 흥미 위주의 책을 많이 읽었다.

둘째, 도서관 이용행태와 독서성향은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이용행태 항목에서 독서 장소, 정보서비스 요청 여부, 이용 횟수, 학교도서관에서 우선해야 할 서비스, 하루 평균 독서시간, 도서선정에 도움 주는 사람, 선호 주제, 도서선정 정보는 도서관 인식의 정보제공 가치, 독서흥미, 도서관 필요성, 물리적 충분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도서관서비스와 도서관 인식의 개선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에서는 발달 단계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고, 사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필요한 정보활용교육과 독서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도서관 전체 자료를 충분히 탐색하고, 도서관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발달 단계와 독서수준에 맞는 도서를 추천한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래들이 스스로 추천 서

가를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또래 관계 형성이 중요한 6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동아리를 운영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넷째, 국어시간에만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이 아니라 전 교과와의 협력 수업 속에서 다양한 글쓰기와 독서토론, 책을 선택하는 방법, 책을 읽는 방법, 교과와 연계한 도서관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부터 도서관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프로그램은 고학년의 발달 단계와 상황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도서관에서는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과도한 학업, 학원수강이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고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환경을 만든다. 편안하고 자유로움 속에서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력도 향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도서관은 고학년 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지발달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에만 맞춰서 학교도서관이 오락과 흥미로운 책을 즐기는 공간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6학년 학생들이 독서흥미가 낮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의 발달적 상황과 바쁜 일상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그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인격적 성장을 돕

는데서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의 방향은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성을 향상을 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역할이 점차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지발달의 측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고력과 독해력 두 요

소만 측정하여 제한이 있다. 아동기 언어능력이 남학생보다 앞선 발달을 보이는 여학생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추리, 문제해결방법, 창의력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인지발달 단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지발달과 관련된 창의성을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창의성과 연관된 도서관의 역할이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의 인지능력을 강화시키고,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지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가은아 (2011). 쓰기 발달의 양상과 특성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강심원 (1994). 인지양식에 따른 인지수준과 과학 탐구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학과, 초등과학교육전공.

강철웅 (2012).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과학적 개념 이해.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통과학교육학과, 초등과학교육전공.

곽미선 (2006). 도서관 활동이 학교도서관의 이용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곽선희 (2010). 초등학교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권이은 (2015). 초등학생의 정보 텍스트 독해 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려은 (2016). 초등학생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 및 정보추구행태분석을 위한 맞춤형 이용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김소연 (2011). 라이브퀵 플러스(LibQUAL+)를 이용한 학교도서관 서비스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 전공.

김영은 (2010).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맞춤형 독서지도 경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행정 정책연구.

- 김지민 (2017). 2000년대 이후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장르문학적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문예창작학과.
- 김지원 (2009). 학교도서관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
- 김지은 (2013).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독서 성향 및 독서 초인지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재교육과.
- 서미연 (2004). 초등학생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성배순 (2009).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연구: 초등학교 4~5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독서지도 전공.
- 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서은희, ... 임호용 (2010).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유림 (2013). 초등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의 독서지도가 학생들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양경화 (2016). 텍스트의 수준이 아동 독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독서교육 전공.
- 오수연 (2010). 전문계 고등학교 도서관의 이용자 요구 분석: 공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문헌정보교육전공.
- 오해연 (2015). 공공도서관 사서 전문직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육지혜 (2016). 도서관 공간 유형과 주이용공간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경미 (2006). 초등학생 독서성향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독서 지도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 전공.
- 이미경 (2015). 정보서비스 분석을 통한 초등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전공.
- 이사라 (2009). 현대사회와 아동발달. 서울: 청목출판사.
- 이소희 (2017). 학교도서관 이용교육이 도서관활용능력 및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역할.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이영옥, 이정숙 (2011).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한 환경, 심리적 문제에 관한 발달 단계별 차이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9(1), 53-79.
- 이은경 (2015). 학교도서관 다대출 아동의 독서 실태와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초등국어교육.
- 이응석 (2016). 구성주의를 반영한 수학 수업이 아동의 지식 생성 수준 및 추론능력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분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초

등수학교육 전공.

- 이정순 (2013). 초등학생 학년별 동화 선호 경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초등국어교육전공.
- 이현선 (2001). 초등학교 아동의 학년 및 인지발달에 따른 놀이 유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교육전공.
- 장해숙 (2014).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독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옥분 (201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수향 (1994). 초등학교 아동의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과 학업성적의 상호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전공.
- 한국교육개발원 (1991).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IV).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01).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 연구(II): 초등학생 대상.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허정 (2009). 초등학생의 신체형태와 체력과 신체조성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한국발육발달학회, 17(4), 201-210.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Y: Norton.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MORI (2003). Young people's attitudes towards reading. *Nestle Family Monitor*, 17, London, MK: Nestle.
- Piaget, J. (1970). *Genetic epistemology*. Translated by Eleanor Duckworth. New York, NY: W.W Norton & Co., Inc.
- Piaget, J. (1973). *The child & reality*. Translated by Arnold Rosin. New York, NY: Penguin Books.

[참고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민독서실태 조사. Retrieved from [https://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pSeq=1590](https://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pSeq=159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 Soo-Hyang (1994). A study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e thinking and academic

-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of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 University, Department of Curriculum of Education.
- Chung, Ock-Boon (2013). Child development. Seoul: Hakjisa corp.
- Heo, Jeong (2009).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body shape, physical fitness and body composi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Growth and Motor Development*, 17(4), 201-210.
- Jang, Hae-Sook (201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reading habits of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a, Eun-A (2011). A study on the aspect and characteristic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Kang, Cheol-Ung (2012).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science based on 6<sup>th</sup> grader's level of logical thinking in elementary school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 Kang, Shim-Won (1994). A study on the cognitive levels and the science process skills based on the cognitive styl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 Kim, Ji-Eun (2013).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ading propensity and reading meta-cognition of the elementary gifted student and the genera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for the Gifted Student.
- Kim, Ji-Min (2017). A study on properties of genre literature featured in adolescent novels since the 2000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 Kim, Ji-Won (2009). A study on service quality and user satisfaction in school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chool Librarianship.
- Kim, Ryeo-Eun (2016). A study on customized user education which analyzed the library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elementary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ian Education.
- Kim, So-Yeon (2011). A study on evaluation of service quality in school library using LibQUAL+ mode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 Kim, Young-Eun (2010). A study on the instruction guidance of the reading subject teachers

- in the school librar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 Policy Studies.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1). A study of thinking ability development program (IV). Seoul: KEDI.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1). The developmental level of primary students in Korea(II): The cognitive and affective dimensions. Seoul: KEDI.
- Kwak, Mi-Seon (2006). The effects of library student volunteers on the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ungkyungkwan University, Major in Librarian Education.
- Kwak, Seon-Hee (2010). A research on the reading program of an elementary school librar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ngju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Kwon, E-En (2015). Study on elementary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with informational tex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Lee Eun-Kyoung (2015). A case study on the reading states and readi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the frequent circul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 Lee, Eung-Suk (2016). Effects of mathematical instructions based on constructivism on learners' knowledge generation level and reasoning abil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Daeg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 Lee, Hyeon-Seon (2001). A study on the form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lay based on the grade level and the cognitive developmental stag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 Lee, Jeong-Sun (2013).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lination for reference of children's stories by grad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 Lee, Kyoung-Mi (2006). Right directions of reading guideline through the analysis of primary school student's reading tenden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Daegu National University,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 Lee, Mi-Kyeong (2015). A plan for vitalizing elementary school library through analyzing information servic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ngju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Lee, Sarah (2009). Contemporary society and child development. Seoul: Chongmok Publisher.
- Lee, So-Hee (2017). The effect of school library use education on library literacy and information litera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yongg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Education.
- Lee, Young-Ok, & Lee, Jung Sook (2011). A study of the difference by development stages on daily stress, perceived environment, psychological problem of child ·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9(1), 53-79.
- Oh, Hae-Yeon (2015).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for librarians in Korea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Oh, Soo-Yeon (2010). A study on user needs for vocational high school library: The case of technical high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Major in the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Seo, Mi-Yeon (2004). A study on the information needs and user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Seong, Bae-Soon (2009). A study of a remedial reading program to improve reading ability on 4th &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Information at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
- Shin, Yu-Rim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ading guidance conducted by a teacher librarian on emotional intellige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Synn, Myung-Hi, Kang, So-Yeon, Kim, Eun-Kyung, Kim, Joung-Min, Noh, Won-Kyung, Seo, Eun-Hee, ... Lim, Ho-Young (2010).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Hakjisa corp.
- Yang, Kyong-Hwa (2016). The effect of text level on the children's reading respons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Department of Reading Education.
- Yook, Ji-hye (2016). A study on user's perception on libraries based on spatial types of libraries and user's main using spac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